

# “분뇨문제, 액비화로 해결해야죠”

분뇨 액비화에 앞장서는 (주)옥성코리아 김금수 사장

**분**뇨의 액비화 방법이 가축분뇨처리를 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인 것을 양돈인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분뇨를 살포할 땅을 구하지 못하거나 액비를 원하는 농가를 쉽게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돈농가들은 액비화 방법을 등한시한채 다른 방법으로 분뇨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주)옥성 코리아의 김금수 사장은 분뇨의 액비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농가를 설득하고 다닌다.

양돈인도 아닌 그가 분뇨의 액비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주)옥성 코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액상분뇨 첨가제와 연관이 있다. 하지만 그 열의는 단순한 물품 판매업자의 수준을 넘어선다. 액비화 방법만이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살아남는 길이요, 농경지가 비육해 지는 길이며 분뇨의 자원화로 국가가 부강해진다는 확신으로 가득차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돼지분뇨를 살포하는데 돼지 1두당 농경지 700평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 양돈농가와와는 별개인 것처럼 보였다. 김금수 사장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환경부와 농림부 등을 찾아다니며 액비 살포규정의 과다함을 지적했다. 각 국의 분뇨 살포기준을 제시하며 엉터리 규정을 고칠 것을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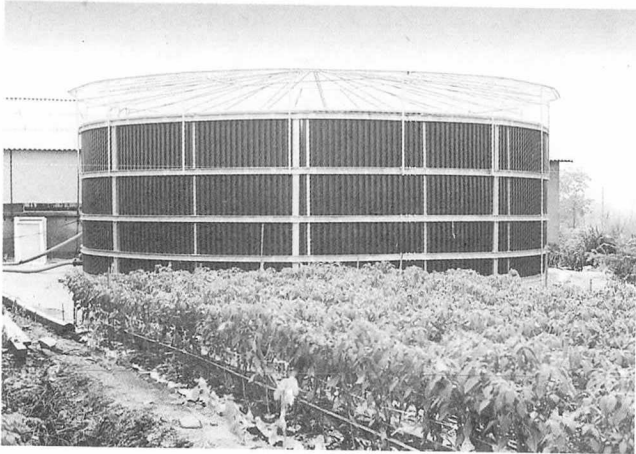
분뇨의 환원 정책이 가장 잘 되는 유럽연합의



▲분뇨처리 방법중 액비화 방법만이 양돈농가들이 생산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는 (주)옥성코리아 김금수 사장

경우 3,000평당 가축 1.7단위의 분뇨량을 살포해서는 안된다는 것의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가축 1단위는 소는 1마리, 말은 2마리, 돼지는 모돈 3마리, 비육돈은 30마리, 닭은 2,500마리가 1단위이다. 돼지의 경우는 모돈 3두가 1단위이므로 돼지 1.7단위는 5.1두의 모돈에 해당된다. 즉 모돈 5.1두에서 생산된 분뇨를 3,000평의 땅에 뿌리는 것이 유럽연합의 액비 살포 규정이다. 모돈 1두당 60평이 된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가 액비 살포 규정을 정할때 모돈을 비육돈 1두로 계산해 비육돈 1두당 700평의 농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모돈 1두가 비육돈 10두에 해당된다는 기술적인 내용



▲프라스틱 액비 저장조 - 콘크리트 건설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하며 공사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액비 살포대조구〉

액비를 뿌리고 고추를 모종한 모습(위), 우측은 액비 살포 없이 고추를 모종했다. 삼화농장 7/10일 현재)



을 환경부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김금수 사장은 말한다.

이 문제는 본회를 비롯 많은 양돈인들이 노력한 결과 지난해 9월에 밭은 175평, 논은 272평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 규정도 과다하다는 농민

들의 지적에 따라, 환경부는... 적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과 협의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액비화 방법이 가장 저렴한 분뇨 처리 방법

김금수 사장이 주장하는 돈분뇨의 액비화를 주장하는 주요 핵심은 이렇다. “액비화 방법이 분뇨 처리를 가장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경종 농가와 협력하면 액비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퇴비화나 정화처리 방법은 기계 감가상각비나 수분 조절제 등 비용이 많이 든다. 운반도 어렵다. 액비화 방법은 시간을 투자하여 슬러리(돈분뇨)를 완전히 발효만 시키면 농토에 더 할 수 없이 좋은 비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비화 사용이 부진한 이유는 액비 사용을 원하는 농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화처리 방법이나 퇴비화를 이용해 분뇨를 처리한다.

## 농촌지도소 등에서 액비사용 권장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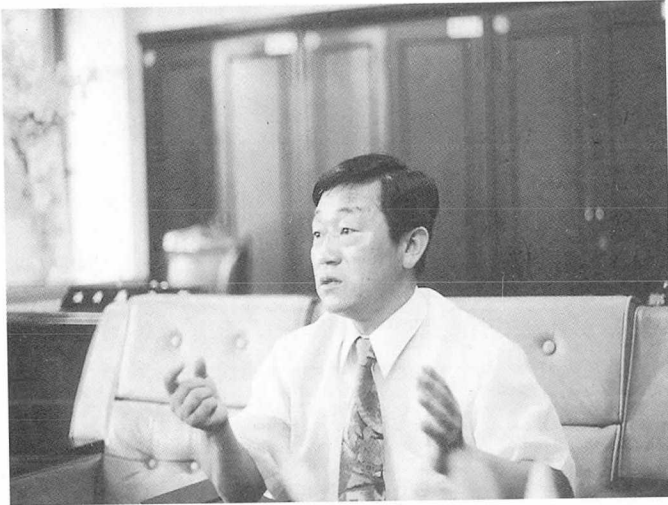
김금수 사장은 “현재의 분뇨 처리정책이 축산국에서만 이루어 질 게 아니라 농산국과 협조해 직접 액비를 사용할 농가에 지도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액비를 사용할 경종농가에 대해 정부가 간이 액비 저장조 설치 자금을 지원해 주고 액비 사용을 권장한다는 것. 눈에 간이 저장조를 만들 경우 100톤 용량에 100만원의 비용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문제는 “슬러리를 어떻게 발효시킬 것인가”이다. 김금수 사장은 분뇨에 첨가제를 이용해 저장



▲뜰에 실시된 ...



▲액상분뇨를 제대로 발효시켜 준다면 액비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유기 농업인 정연규씨, 그는 철원군 군의원이기도 하다

조에서 에어레이션과 교반 작업이 없이도 발효시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 철원의 삼화농장(대표: 최봉린)은 첨가제를 이용해 돈사 피트조에서 슬러리를 발효시키고 있으며 2차로 저장조에서 발효시켜 인근 농가에 나눠주고 있다.(관련 내용 본지 97년 12월호 참조). 유기 농업인 김상우씨는 삼화농장의 슬러리를 공급받아 자신의 논에서 숙성시킨후 액비로 사용하고 있다. 김상수씨는 "액비 사용은 퇴비 공급 비용에 비해 1/10 수준에 불과해 경제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힘입어 철원 유기농 쌀 단지(대표: 정연규)에서는 올해 10만평의 논에 실험용으로 400~500평의 간이 액비 저장조를 설치해 올

가을 쌀 수확후 살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슬러리는 인근 양돈농가에 발생하는 돈분뇨이다.

정연규씨는 2년전부터 돈분뇨를 퇴비화 시킨 비료를 사용했으나 물류비용이 높아 액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연규씨는 지금까지 액비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은 불완전 발효에 의한 냄새 발생과 작물 피해였다고 말하고 있다.

발효가 잘된 액비만 생산해 주면 얼마든지 사용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액비는 비료의 3대 요소인 질소, 인, 칼륨이 조화를 이룬다고 말했다.뇨에는 칼륨이 풍부하고 분에는 질소와 인이 풍부하므로 분뇨를 분리 수거하여 비료를 만들면 비료 성분의 부조화를 초래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금수 사장은 선진 외국에서는 분뇨의 정화처리 방법 보다는 액비화로 농토에 환원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공동 폐수 처리장 등을 설치하여 정화처리에 관심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정화처리 방법이 얼마나 무모한 시도였는지는 환경부가 지난 1월 전국의 공동폐수처리장 46곳의 설치공

사를 전면 유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금수 사장은 "액비 저장조 설치시 플라스틱제를 이용한 저장조의 설치가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보다 공사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내구성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액비 저장조 설치시 침전 분리조, 저장조, 저류조 등 저장조를 구분해서 설치하면 미생물에 의한 발효도 더디기 때문에 일체형(원통형)의 저장조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축협 관계자에 의하면 "저장조를 용도별로 분리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제기돼 원통형의 저장조도 곧 표준 설계도로 고시 될 것이다"고 전했다. <취재: 최성현> **養豚**